

## 서평 『알라』

#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실천적 가이드



미로슬라브 볼프 저  
김지윤 역  
MP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신은 동일하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저서 『알라』의 주장이다. 모태신자로 주일학교와 대학부, 대학생선교회와 청년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해 온 내게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 말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은 종교라고, 또 알라를 믿어도 구원을 얻으니 꼭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신학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센세이션을 일으켜 세상의 주목을 얻으려는 학자의 말 같기도 하다.

그런데 저자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유고 내전을 겪으면서 인종 간의 학살, 또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살육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고통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어떤 강연장에서 위르겐 몰트만이 “하지만 당신은 체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라고 볼프에게 물었다. 『배제와 포용』(IVP, 2012)에서 볼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93년 겨울이었다. 당시 몇 달 동안 ‘체트닉’이라고 불리던 악명 높은 세르비아 전사들이 나의 고향 땅에 파멸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 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참이었다. 나는 체트닉—공격적인 타자, 이를테면 악한 타자—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러한 끌어안음을 정당화해 줄까? 나는 어디에서 그럴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크로아티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답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즉시 알 수 있었다. “아니오,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3쪽)

이런 볼프가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신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정신 나간 신학자의 헛소리도 아니고, 다원주의적 신앙관에 따라 “아무거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요.”라는 말도 아니다. 그는 종교적 갈등과 분쟁의 핵심에서 분명히 일어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화해와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볼프의 논증은 치밀하지만 상식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학술적이지만 현학적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주의적 성서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복음주의적이면서도 어떻게 그런 주장이 가능할까? 이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서로 신앙의 이름으로 죽이려는 것을 서로의 신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이 구원론이지 않고 정치신학적이라고 줄곧 말하는 볼프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알라는 폭력적인 신이 아닌가? 볼프는 되묻는다. 정말로 알라가 폭력적인 신이고, 이슬람은 폭력적 종교인가라고, 우리가 이슬람을 폭력

과 더불어 연상하게 되는 것은 9.11 테러나 수없이 자행되어온 자살폭탄테러 등과 같은 사건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폭력은 기독교에도 많이 있었다. 무슬림들에게 기독교가 폭력적임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건들 말이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폭력이 이슬람의 폭력보다 더 심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는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시다)’고 외치며 폭탄을 터뜨리지만, 십자군은 ‘크리스투스 도미누스(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며 무슬림의 목을 베었다. 둘째는, 오늘날 이슬람 폭력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기독교도 유죄라는 것이다. 이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연결되는 알라-이슬람-폭력의 연상이 아니라, 다수의 무슬림의 삶과 전통적으로 존중받아 온 이슬람 신학자들의 꾸란 해석에서 나타나는 이슬람이 폭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6억 무슬림 인구



**김선욱** 현재 송실대 철학과 교수 및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 한국철학회 사무총장 및 제22차 세계철학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기윤실 정치윤리운동본부장을 지냈다. 저서로 『정치와 진리』, 『아모르 문디와 레스 푸블리카: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성서적 정치실천』, 『평화와 반평화』 등과 많은 번역서가 있다.

의 절대 다수는 폭력을 반대하고 그에 저항한다. 책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동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볼프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비교한다.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을 인정할 수 없겠지만, 유대인이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기독교의 하나님을 유대교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신을 섬기는 것이 가능함을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우선 유일신을 진실로 믿는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첫째는, 서로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신의 유일성'을 근거로 두 집단의 믿음의 대상이 같은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은 옳고 다른 집단의 신앙은 모두 망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16억 무슬림 인구 모두가 집단적으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들도 진지하게 신앙에 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들과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볼프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가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유하는 믿음이다.

1. 신은 오직 한 분이다.
2. 신은 신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했다.
3. 신은 신이 아닌 모든 것과 다르다.
4. 신은 선하시다.

신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라는 1~3의 믿음 외에도, 자신의 존재 안에서는 선하시며 피조물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여야만 한다. 전능자가

선해야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볼프는 이 네 가지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들이 신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한다.

볼프는 여기에 다음의 두 가지를 더한다. 신이 내린 요구에서의 공통점을 찾은 것이다.

5. 신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를 다해 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6. 신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5~6번의 공통점만으로는 이 계명을 내린 신의 공통성을 입증할 수 없지만, 위의 1~4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5~6은 그것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위의 6가지 믿음에 동의를 한다면 두 종교의 예배의 대상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한다고 볼프는 말한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비록 예배의 모습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 차이를 갖고 있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반해, 기독교에 있어 삼위일체 신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무슬림은 천지를 창조하고 돌보는 유일한 신의 단일성을 철저히 믿는데, 삼위일체는 신의 단일성을 부정하므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즉,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신의 단일성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신의 단일성은 기독교인들도 철저히 믿고 있는 바다. 삼위일체 신관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있기에 기독교인은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결코 다신적으로 이해하지 않

는다. 즉, 무슬림이 비판하는 것과 같은 삼위일체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무슬림이 비판하는 방식의 삼위일체 이해를 거부한다. 따라서 볼프는 기독교의 진정한 삼위일체 관념을 무슬림이 인정하기만 하면 이슬람의 신관이 기독교의 신관과 충돌할 이유는 없게 된다고 한다.

물론 기독교인이 삼위일체 신관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성적으로 무슬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마치 우리의 지성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을 다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위일체 관념 자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무슬림이 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삼위일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감출 수 없는 비논리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드러낸다고 한 것이다. 마틴 루터도 기독교와 이슬람 신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개혁의 대상으로 여긴 가톨릭보다 이슬람이 하나님에 대해 더 진지하다고도 말한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이 한 분의 공통의 신이라는 주장과 그 취지는, 서로 싸우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프는 말한다.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 신앙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나쁜 욕망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것이다. 세계 인구 절반을 넘는 수를 이루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이유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기 때

문이다.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 가난, 물 부족, 환경 훼손, 전염병 등과 같은 문제들 말이다. 더욱이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가 이미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힘을 잃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볼프는 주장한다.

볼프의 이 같은 주장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 책에 대해 기독교 신관이 이슬람의 그것과 다른 점을 강조하거나, 폭력적 무슬림의 행태를 근거로 이슬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구원이 문제라면 하나님과 알라의 동일성을 이처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볼프도 명확히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렬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삼위일체 신관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기독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스탄불이나 코르도바, 그라나다에 있는 모스크이자 성당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갖게 된 의문,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이 책을 통해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이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탁월한 실천적 가이드 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